

WEB CONTENTS



2024년 12월 19일 22시 38분



여수시

목차

목차	2
축제소개	3
빼어난 풍광과 산해진미의 매력에 푹 빠지는 곳! 제22회 거문도백도은빛바다 체험행사	3
위치	4
오시는 방법	4

빠어난 풍광과 산해진미의 매력에 푹 빠지는 곳! 제22회 거문도백도은빛바다체험행사

2024. 8. 2.(금) ~ 8. 3.(토) / 거문도 삼호교 물양장 일원
아련한 그리움과 자연의 순수함 그리고 고마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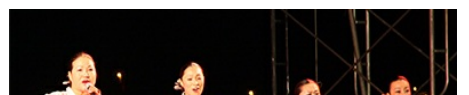
포스터 자세히보기

하얀 갈매기들은 연신 날개 짓을 하고 배들은 그 사이로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한 폭의 수채화가 따로 없다. 여수항에서 뱃길로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거문도와 백도는 이렇게 아련한 그리움과 싱싱한 채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얀 갈매기들은 연신 날개 짓을 하고 배들은 그 사이로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한 폭의 수채화가 따로 없다. 여수항에서 뱃길로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거문도와 백도는 이렇게 아련한 그리움과 싱싱한 채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거문도와 백도는 쌍둥이다. 아름다운 절경이 닮았고 망망대해의 푸른빛이 일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100년 가까이 된 등대가 있고, 영국군들의 묘지가 있는 여수 거문도 섬 곳곳에는 동백나무가 지천이다. 풍랑 불면 들어오라는 듯 두 섬이 팔을 뻗어 동그렇게 감싸고 있다.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러시아·영국·미국·일본 등 열강이 탐냈던 천혜의 항구였다. 등대로 가는 길은 동백꽃길. 거문도를 동백섬으로 부르는 것도 이 길 때문이다. 섬에 지라는 나무의 70%는 동백나무다. 거문도란 이름도 구한말에 생겼다. 거문도(巨文島)란 학문이 크다는 뜻.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청나라 수군제독 정여창이 이곳을 찾았을 때 거문도 사람들의 학식이 높은 것에 감탄해서 '거문'(巨文)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거문도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에 있는 백도. 국가명승지 제7호다. 섬이 100개에서 하나 모자라 일백 백(百)에서 한 획(一)을 빼 백도(白島)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9개의 들섬으로 이뤄져 있다. 옥황상제의 아들이 용왕의 딸과 눈이 맞아 이곳에 머물렀는데 100명의 신하를 내려 보내도 올라오지 않자 화가 나서 아들과 신하들을 돌로 변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백도는 1987년 이래 환경보호와 생태보전을 위해 사람의 접근을 금지해 온 '금단의 섬'. 병풍처럼 늘어진 병풍바위, 꾸지람을 받고 있는 모습의 형제바위, 곡식을 쌓아놓은 듯한 노적섬, 매가 먹이를 채갈 듯한 매바위... 우뚝 솟은 바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성(城)처럼 위엄이 있다. 먼 옛날 거문도 어부들은 안개 그득한 날, 밤바다에서 백도에서 자라는 풍란의 향기 따라 노를 저어 거문도로 들 수 있었다 하니, 이야기만으로도 향기로운 곳이다. 망망대해에 뿌리를 내린 거문도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향유할 정도로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섬이다. 더구나, 자신들의 것을 소중히 할 줄 아는 거문도 사람들이 지켜 이어오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여수거문도·백도 은빛바다체험행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체험행사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걸쳐서 개최된다. 주축이 되는 행사는「거문도 뱃노래」시연으로 「거문도 뱃노래」는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 어민들이 뱃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위치



오시는 방법

- 여수여객선터미널 - 거문도 (2시간 30분 소요) (주)그린원드쉽핑 061-662-1144, 주식회사 KT마린(061-810-3331)
 - * 쾌속선, 여수시 손죽도, 초도(의성리) 경유
- 고흥군 녹동항 - 거문도 (3시간 소요) 평화해운 061- 843-2300
 - * 철부선, 차량운송 가능 (<http://www.sea-4u.com/>)

여객선 정보 바로가기

COPYRIGHT(C) BY YEOSUCITY. ALL RIGHT RESERVED.

YEOSU CITY
Web Contents

